

한약재 기준규격보다 명확한 방향 제시돼야

www.akomnews.com

원외탕전실 ”규격품 한약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많아“

생강, 갱미 등 규격품 있지만 ”규격품 사용 어려워“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gredients on a maple wood board and loose over distressed white

한의원 최성훈 기자 규격품 한약재 사용과 관련 일선 원외탕전실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격품 한약재의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준규격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1월 복수의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 규격도와 관련 규격품 약재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료약재 관리에서 : 공정서에 나와 있는 한약재 규격품만을 써야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식량작물의 경우 공정서가 있더라도 채산성 때문에 공정서대로 나와 있는 규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 원외탕전원 : 원장은 : 한약재 중 갱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지만 공정서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갱미를 의약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이유는 작물 재배 농가의 채산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의원에서 쌀을 쓰는 건 불법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덧붙였다.

실제 규격품 제조 현황에 따르면 갱미의 경우 품목제조 신고 기관은 : 개소지만 규격품 갱미를 제조하는 기관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는 생강을 또 다른 예로 들었다. 생강은 한약재이기도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공정서에 나와 있다. 공정서는 법령과도 같기 때문에 생강 역시 : 규격품만을 써야한다.

그는 : 생강을 규격품 한약재대로 생산하려면 원료 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와 같은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 나오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출고할 때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 또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 신선물을 과연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봉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약이나 약리작용이 강한 약재의 경우 당연히 공정서가 필요하겠지만 식량작물과 같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의 경우 공정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외탕전실 : 원장도 약재의 : 공정서 기준 미비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가 원외탕전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은 : 기준 : 규격에 맞는 약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준이 없는 약재들도 많아 아예 생산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사상약재도 기준 규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 원외탕전원은 기준 규격이 없는 약재면 아예 쓰질 않고 있다. 원장들의 요구대로 다 해버리더라도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00 / 333 , .%0.%* (5 +) , .%0 °1/0+) , . . . ~ 5 / " % ° (! , (% ~ ~ ~

